

광주·전남 지역 자원 가치 높여 글로벌 브랜드 키우자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협력적 산업혁신생태계 구축·국제 교류 활성화 등 적극 나서야
송재호 위원장 “균형발전 지속 추진…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

‘광주전남 2040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전남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개원 4주년, 건원 28주년을 기념해 광주일보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3일 오후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린 토론회는 인구, 기업, 경제, 산업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쏠리면서 야기되는 부작용과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양극화 지표를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3대 전략과 ‘혁신도시 시즌2’,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활 SOC’ 등 9개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지표를 인용, ▲인구의 50.1%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50대 기업 본사의 92.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 불균형 지표’를 제시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방은 30년 이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사라질 지 모른다는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송 위원장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점을 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9개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임지를 재차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포용·혁신’을 제시하고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등 3대 전략과 ‘지역발전 투자협약’, ‘혁신도시 시즌2’ 등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래까지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삶의 질 제고와 커뮤니티 활성화 ▲협력적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지역자원의 가치제고·글로벌 브랜드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적 교류협력 활성화 ▲분권과 협치를 구현하는 행정과 사회 혁신 추진 등의 과제를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5개 정책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 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 김광희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나주몽 전남대 교수, 문정은 광주청년센터 the 숲 대표,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장필수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등이 나서 국가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개원 4주년과 건원 28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광주전남미래 전략 토론회가 3일 오후 나주 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내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경전선 전철화 등 13개 정책·23개 예산지원 사업 건의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전’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4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전남지역 현안 사업비 증액과 반영에 총력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13개의 정책 지원 사항과 23개의 예산 지원 사업을 건의하고 정부 예산안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렸다는 점에서

지역 SOC 현안사업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예산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전남도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다음달 예타가 마무리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했던 설계·착공비 145억(총사업비 1

조7055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비도 실시계획비(10억) 외 활주로 연장사업의 초기 착공에 필요한 예산(140억) 반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예산(20억)을 예타 종료 시기(10월)에 맞춰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통일부, 북미협상 지연에 “상황 보며 대처”

통일부는 3일 북미실무협상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남북관계 답보 상태도 지속되는데 대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말에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평화구축을 위해선 빠른 남북관계가 반발적 앞서가기도, 북미대화가 반발적 앞서가기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

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전전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이날 통일부를 직접 비난한 데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연습과 남측의 최신 무기 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화와 협력 타령’ 제목의 기사에서 “우

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포했다”며 “남조선 통일부는 ‘대화’ 타령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방북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당초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유엔측에 알렸지만, 최근 참석자를 대사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애국 마케팅’ 업고 ‘필승코리아’ 펀드 열풍

광주·전남 978명 가입…이용섭 시장 등 지역인사 가입 줄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00% 우리 자본’을 내세운 금융권의 ‘애국 마케팅’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이하 필승 펀드) 가입 금액은 7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펀드에 돈을 맡긴 지역민은 광주 454명·전남 524명 등 모두 978명으로, 전체 가입자(1만3904명)의 7.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이 펀드는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국산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운용보수의 50%는 공익기금으로 적립돼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농협 계열사가 300억원을 초기 투자했고, 통상 70bp~80bp(bp=0.01포인트) 대인 주식형 펀드 운용보수를 50bp로 낮춰 수익률을 높였다.

지난달 14일 출시된 이 펀드는 초기 평균 가입액이 1억원을 못 미쳤지만, 같은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에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상승세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29일 4억4500만원(721건)이었던 가입금액은 주말이 지난 2일 기준 7억7100만원(978건)으로 73.2% 급증했다.

지역 인사들의 가입도 줄을 잇고 있다. 3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은행 시청지점을 찾아 필승 펀드에 가입했다.

이 시장을 포함해 김영록 전남지사, 송중욱 광주은행장, 이용주(여수 갑) 국회의원, 장석웅 전남교육감, 정중순 장흥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고여인 순천대 총장 등이 힘을 보탰다.

지난 28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수를 찾아 펀드 투자에 나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정계계 인사들의

가입도 잇따르고 있다.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7일 신협중앙회가 내놓은 ‘815 해방 대출’도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815 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8.15% 이내 금리로 전환해주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2일 기준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의 ‘815 대출’ 판매액은 61억2300만원(679건)으로 전국 10개 지역본부 가운데 가장 많다.

‘애국 열풍’을 업고 ‘815 대출’은 출시한 달을 앞두고 전국 누적 판매액이 400억원(4674건)을 돌파했다. 박찬길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차장은 “일본 불매운동에서 나아가 국내 순수 금융 자본을 이용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 해당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투자자
모심

- 전국 급매물/경매물건
 -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률 - 연 20%이상
- 법적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제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71)	광주교육대학교(2071)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별)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졸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졸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 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 의 010-5464-4448(주인)